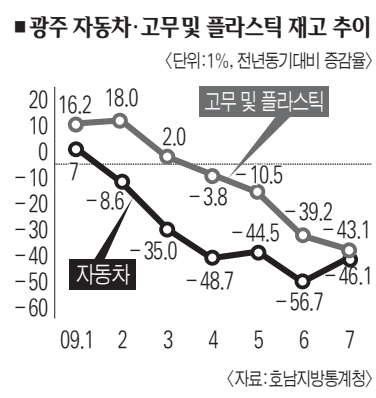


경제

자동차·타이어 재고 확 줄었는데...

광주권 車 46%·타이어 43% 급감
노사갈등 계속돼 정상 가동 불투명
고객 수요 못맞출때 성장기회 잃어



광주지역 산업현장의 재고가 확 줄었다. 광주 제조업의 주력인 자동차·타이어·휴대폰용 카메라모듈 등의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한 덕분이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시기가 됐다... (자료:광주지방통계청)

광주지역 산업현장의 재고가 확 줄었다. 광주 제조업의 주력인 자동차·타이어·휴대폰용 카메라모듈 등의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한 덕분이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시기가 됐다... (자료:광주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7월 광공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12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늘고, 세금감면 혜택으로 내수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이 전년보다 32.9%나 늘어 3개월 연속 광공업 생산 증가를 선도했다...

반면 재고는 많이 감소했다. 작년 동월 대비 23.3%나 줄었다. 재고는 자동차가 -46.1%, 타이어 같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류가 -43.1%의 감소율을 보였다...



기아차 광주공장 출하장.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금호타이어, 노조원 21명 고소

사측 해고 대상자 조만간 개별 통지

금호타이어가 사내 농성을 주도한 고공성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사측이 기업 생존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에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사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이 경영상 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 돌입하면서 임은 매출 손실이 830억원에 달한다"면서 "징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징의대핵

위원회 간부 21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17일 노조에 '징리하고 협의 요청서'를 공식 통보한 이후 진행된 부분·전면 파업 등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006년 판결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호한 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노

조의 징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지금껏 진행된 징의행위는 구조조정 반대 징의가 아닌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합법적 징의 행위"라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는 또 사측의 2차 회담 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대상자 통보와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원 선출이 끝난 뒤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노조는 지난달 27일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해 2일까지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 제조업 돈 줄 더 마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활

9월 자금전망 BSI 91 ... 전달보다 2P 하락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8월 중 자금 사정이 전달보다 악화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매출액 20억원 이상 지역기업 319개의 기업자금을 조사한 결과, 8월 중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9로 전달의 9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8월 중 자금수요 BSI는 110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자금조달 BSI는 94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중 자금사정전망 BSI는 9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개선됐으며 업종별로 제조업(93→91)은 2포인트 하락하고 비제조업(86→94)은 8포인트 상승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빚 지급 능력 하락

14개사 유동비율 69% ... 전년보다 26.95%P ↓

올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말 현재 유동비율은 69.10%로 지난해 6월말(96.05%)에 비해 26.9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나눈 백분율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3조5천253억원으로 작년 대비 19.94% 증가했고 유동부채는 5조1천166억원으로 66.72% 증가했다. 유동비율 상위사는 화천기공(327.27%), 광주신세계(263.70%), 부국철강(228.62%), 동아에스텍(206.76%), DSR제강(147.56%), KPX화인케미칼(98.81%) 등의 순이었다. 또 유동비율 증가 상위사는 광주신세계(86.53%P), 화천기공(80.64%P), DSR제강(43.01%P), 부국철강(41.17%P) 등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3·24일 '창업스쿨'

신보호남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양본부는 23일과 24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스쿨'을 연다. 이번 강좌는 사업 타당성 분석, 창업 실무, 창업 관련 행정절차 및 창업기업의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15일까지 접수하며, 50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다. 문의 (062)607-9187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견건설업체 현진 워크아웃 중단

어음 240억 못막아

중견건설업체인 현진에 대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지난달 31일 중단됐다. 현진은 이날 시중은행에 돌아온 어음 약 240억 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31일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현진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방안을 놓고 지난 25일 서면 결의 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채권단의 4분의 3(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진은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현진은 '에버빌'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는 양산, 수완지구 등에 2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이미 입주자가 이뤄졌고 하남지구 572세대는 지난해 1월 공사가 중지됐다. 그러나 하반기 건설중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돼 분양계약자 143세대에 환급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inancial summary box showing: 코스피지수 1,591.85 (-16.09), 코스닥지수 514.70 (-5.49), 금리 (국고채 3년) 4.38% (+0.03), 원·달러 환율 1,248.90원 (+4.5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ies for sale/rent in various areas like Gwangju, Gyeongju, and Daegu. Includes contact info and company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지구' (Suwan District) located near Lotte Mart, featuring '패리스타워빌딩' and '중앙메디컬빌딩'.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offering various services and property listings.